

## ▶ 내신 기출 문학 천재 정-상편 ◀

### 1. 문학과 삶

#### (1) 문학의 기능과 가치

*봄눈 오는 밤 (47문제)-----	1쪽
*19세 (46문제)-----	23쪽
*풀 비린내에 대하여 (20문제)-----	56쪽

#### (2)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쉽게 씌어진 시 (45문제)-----	72쪽
*보리타작 (40문제)-----	95쪽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35문제)-----	112쪽

###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 (1)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와 수용

*산유화 (52문제)-----	139쪽
*속미인곡 (55문제)-----	163쪽
*유자소전 (39문제)-----	195쪽

#### (2) 문학과 인접 분야, 문학과 매체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별빛 (25문제)-----	225쪽
*뿌리 깊은 나무 (22문제)-----	242쪽

◆빠른 전체 정답-----265쪽

◆해설-----268쪽

**교재 버전: 2021.02.01**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http://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내신 기출 문학 천재 정-상편◀

( )학기 (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 )학기 ( )고사 진도 체크

단원명	문제 풀이 계획일	문제 풀이 시작일	문제 풀이 완료일	틀린 문제 수	1차 복습 완료일	2차 복습 완료일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 내신 기출 문학 천재 정-상편 ◀

### 내신 준비 가이드

Q. 내신 준비 언제부터 시작할까?

▶ 시험일 한 달 전부터는 시작해야 한다. (국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이라도) 한 달 전이면 대개 시험 범위의 윤곽이 잡히고 전체 시험 범위의 진도도 어느 정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과의 균형도 고려한다면) 이때가 제일 좋다. 의욕이 앞서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도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내신 준비는 적절한 타이밍에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Q. 내신 준비의 큰 틀은 무엇인가?

▶ 학교 쌤이 곧 출제자이니, 너의 국어 담당 선생님을 신(god)으로 여겨라! 신(국어 쌤)은 시험의 범위를 결정하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창조자이니라. 그렇기에 수업 시간을 시험 준비의 최대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라. 신의 말씀을 두뇌에 입력하고 손으로는 부지런히 받아 적어 놓아라.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필기가 잘된 교과서는 가장 완벽한 시험 대비 교재이다.

Q. 교재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

▶ '자습서': 교과서 필기 꼼꼼히 했다면 굳이 필요 없다.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내용까지 몽땅 포함되어 있어 내신에 당장 불필요한 공부를 하게 될 우려가 있다. 공부 착실하게 하고 필기 꼼꼼하게 한 교과서가 선생님의 포인트도 적절하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 대비용으로 자습서보다 100배 낫다. 그래도 기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자습서가 없어서 불안하고 참고 및 보충 정도만이라도 하고 싶다면 자습서 파일을 활용하라! **[홈피 자료실에서 자습서 파일 다운로드!]**

▶ '해당 출판사 전용 평문(평가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 전용 평문은 다양하지 않고 유일하게 한 종만 출시된다. 문제 수도 많지 않을뿐더러 기본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있다면 풀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자습서(자습서에도 문제가 약간 있음)가 있고 학교에서 혹은 학원에서 주는 교재나 문제가 있는 프린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출판사 평문을 표방한 타 문제집도 마찬가지다. **[홈피 자료실에서 기본 문제 파일 다운로드!]**

▶ '기출 문제집': 국어는 기출이 진리! 반드시 필요하다. 기출은 문제의 질 자체를 논할 필요가 없다. 질이 높던 낮던 난이도가 낮건 높건 실제로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시험에 임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안 보더라도 기출은 꼭 봐야 한다. 물론 수업 잘 듣고 복습 철저히 하면 기출을 풀지 않더라도 100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극소수일 뿐이다. 문제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딱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두말 할 것 없이 당연히 기출이다.

★ 기출 활용법: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 혹은 교무실(혹은 도서관)에 학교 기출이 있다. 재학생들은 열람해서 복사도 대부분 가능하다. 우리 학교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꼭 살펴보자. 허나 출제 쌤들은 자신의 학교 기출 문제를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라는 기대는 버리자. 오히려 같은 출판사의 다른 학교 기출 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어 쌤들이 시중 문제집이나 자습서의 문제를 피하면서도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그리고 독창적인 문제를 내는 것에는 공통분모가 발견되는 것에 기인한다. 되도록이면 다수의 많은 학교의 기출을 접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학교 쌤들이 자주 출제하는 유형과 패턴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다.

▶ '고난도 문제집': 내신 대비용 출판사에 목차에 맞는 고난도 문제는, 문제집으로도 인터넷 파일로도 존재하지 않으니 찾을 필요가 없다. 수요도 많지 않을뿐더러 질 좋은 고난도 문항 개발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작하는 선생님도 출판사도 없다.

▶ '기타 기본 문제집': 문제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출판사 차례에 맞는 않는 범용 혹은 수능 관련 기본 문제를 사서 푸는 것은 내신 대비용으로 쓴데없는 짓이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학년 문법 같은 경우나

## ▶ 내신 기출 문학 천재 정-상편 ◀

외부 지문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하다. 인터넷상에서 조금만 서치해도 많은 문제를 금방 찾을 수 있다.

### Q. 선행 필요한가?

▶대부분이 불필요하다. 시험 범위가 나왔더라도 수업 진도 상황에 따라 범위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진도보다 미리 공부해서 낭패를 보는 일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문학)라는 과목 특성상 한 작품(글)을 배우더라도 그것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수업 내용은 선생님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로지 수업 후 배운 내용에 대해서만 철저한 복습만이 필요할 뿐이다.

### Q. 그럼 학원 선행은 불요하단 말인가?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수업만으론 부족할 수 있기에 학원 선행과 복습은 도움이 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점수를 올려주기 위한 업을 가진 학원 쌤들이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여러분의 점수 향상을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 Q. 공부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있는가?

▶당연히 있다. 학교 쌤의 수업 시간에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이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무리 학교 쌤의 수업이 불만족스럽다해도 출제자는 학교 쌤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쌤의 수업을 구워삶아 먹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쌤과 친해지는 것이 좋다. 교과서의 1순위 학습은 학습활동이나 본문의 날개 문제(물음)이다. 이는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쌤들이 문제를 그대로 출제해도 별 부담과 무리가 없다. 교과서 문제는 하나도 틀림없이 서술형으로도 외워서 풀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 2순위는 필기 내용의 정리와 암기이다. 계속 반복해서 백지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차차 늘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홈피 자료실에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 Q.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이 출제될 수 있나?

▶안 배운 내용은 절대 출제 될 수 없다. 다만 수업시간에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공된 프린트에 심화된 내용 혹은 플러스된 내용이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출제될 수 있다. 허나 그것들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슬쩍 보는 정도로만 충분하다.

### Q.교과서 본문에 안 나온 외부 예시나 지문 출제될 수 있나?

▶교과쌤에게 위와 같이 질문했을 때 확실하게 대답을 주시면 해결될 문제이지만 대부분이 쌤이 애매하게 말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공부 많이 시키고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외부 내용을 일단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한다. 교과서 본 지문(작품)과 관련하여 나온 세컨 지문(작품)은 수업 시간에 다루었으면 물론이건 다루지 않더라도 봐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교과서 내부에 작품(지문)명 정도만 언급된 것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1 문법 파트는 당연히 교과서에 없는 예시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해야하며 문학 작품의 일부분이 외부에서 나오나 그것들을 위해 다른 교재를 사거나 할 필요 까진 없다. 외부 지문은 내부 지문에 비해 그 수준이 많이 낮기 때문이다. 외부 지문은 표현 기교나 분위기 정서 태도에 관한 현대시나 고전 시가의 예 위주로 살펴보면 된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 내신 기출 문학 천재 정-상편 ◀

### **망망의 숲 한켠이 보인다.**

우리는 모두 신과 같은 창조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  
이 교재를 공부할 때마다  
이번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그 점수가 우주에 저장되리라

원하는 점수를 받은 미래의 감정을 미리 풀어내어라  
그리하면 그 점수를 창조할 수 있는 우주의 힘을 끌어당긴다.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고 갈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갈구하는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는 것이고  
그 생각은 무엇이 부족한 상태를 창조할 뿐이다.

이미 성취된 목표를 상상하며 그것을 마음에 풀어보자  
그리고 정성과 열정을 쏟아낸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 **<머리 예언서>**

나는 이번 (        ) 고사 (        ) 과목에서 (        ) 점 득은 (        ) 공감을 이루었다.  
나는 이번 (        ) 고사 (        ) 과목에서 (        ) 점 득은 (        ) 공감을 이루었다.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 “봄눈 오는 밤” 문법 정리

## 정리

<b>갈래</b>	서정시, 자유시	<b>성격</b>	감각적, 서정적, 심미적
<b>소재</b>	봄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	<b>주제</b>	봄눈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
<b>특징</b>	① 의인법, 중의법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함. ② 시각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함.		
<b>구성</b>	1연	숲속에서 봄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	
	2연	나무의 예쁜 감은 눈에 대한 예찬	
	3연	나무의 눈에 입 맞추려는 눈송이들에 대한 공감	

## 핵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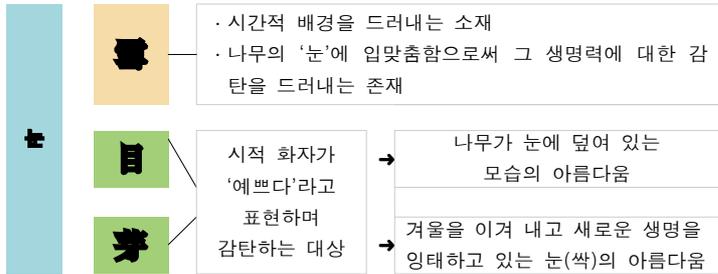
### ■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

- **봄눈** ① 시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  
 ② 나무의 ‘눈’에 입맞춤함으로써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는 존재
- **감은 눈**: 시적 화자가 ‘예쁘다’라고 표현하며 감탄하는 대상. 이때 눈은 감각 기관인 눈 [目] 과 초목의 싹’을 뜻하는 눈 [芽] 으로 볼 수 있다.

### ■ 시의 중심 내용



### ■ ‘눈’의 의미



■ 이 시에 사용된 표현 기법

<b>의인법</b>	인간이 아닌 사물이나 관념에 인격을 부여하여 인간적인 요소를 지니게 하는 방법	
	[예시]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쁘지.	[예시] 눈송이들이 줄달음쳐 온다. 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b>중의법</b>	하나의 단어나 문장이 하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	
<b>풍의법</b>	[예시] 너의 예쁜 감은 눈.	
<b>묘호법</b>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불러 주의를 새롭게 환기하는 방법	
<b>영탄법</b>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예시]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네 예쁜, 감은 눈, 에 퍼붓는 봄눈!	

■ <봄눈 오는 밤>으로 살펴 본 문학의 심미적 가치와 기능

<b>&lt;봄눈 오는 밤&gt;에 담긴 문학의 심미적 가치</b>	봄날에 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의 모습을 감각적인 표현으로 아름답게 그린 시를 감상하며 심미적인 측면을 통해 정서적으로 고양됨.
<b>문학의 심미적 기능</b>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활동을 통해 삶을 정서적, 미적으로 고양할 수 있음.</li> <li>· 문학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나름의 정제된 방식으로 표현하며 그 과정에서 아름다움과 쾌감을 느낌.</li> </ul>

<봄눈 오는 밤>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섬세한 마음을 표현한 시이다. 1연에서는 눈 내리는 풍경을 묘사하였고, 2연에서는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을 것'이라 상상하였으며, 3연에서는 그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눈이 줄달음쳐 온다고 상상하며 자신도 눈처럼 그러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 '감은 눈'의 '눈'은 의인화된 나무의 눈(目)으로 볼 수도 있고, '새로 막 터져 돌아나려는 초목의 싹'을 뜻하는 눈(芽)으로 볼 수도 있다. '감은 눈'이라는 시구는, 앞의 경우라면 나무가 봄눈에 덮여 있는 모습을, 뒤의 경우라면 나무의 눈(芽)이 봄을 맞아 막 싹트려고 하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 눈'의 '눈'은 의인화된 나무의 눈(目)으로 볼 수도 있고, ... 나무의 눈(芽)이 봄을 맞아 막 싹트려고 하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 시에 나타난 '감은 눈'의 중의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눈'을 의인화된 나무의 눈(目)으로 이해한다면 '감은 눈'은 나무가 봄밤을 배경으로 봄눈에 덮여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봄밤에 눈을 맞은 나무가 고즈넉하게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한편 '눈'이 초목의 싹을 의미하는 눈(芽)이라면 '감은 눈'은 나무의 눈이 봄을 맞아 싹트려고 하는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눈송이들'이 이러한 '감은 눈'에 입 맞추려 한다는 것은 봄의 생명력에 대한 감탄과 예찬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봄눈 오는 밤” 학습 활동 문제 모음

### 1. 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해 보자.

화자가 실제로 본 풍경	상상한 내용	
<b>1연</b> 오는 밤, 길 건너 숲속에서 나무들이 눈을 맞고 있다.	<b>2연</b> 나무들이 예쁘게 눈 을 감고 있다.	<b>3연</b> 눈송이들이 나무들 의 감은 눈에 감탄하 며 입 맞추려 퍼붓는 다



## “봄눈 오는 밤” 구원 분석

### 1연 | 숲속에서 봄눈을 맞고 있는 나무를

눈 오는 봄날 밤, 시적 화자는 길 건너에 있는 숲속에서 눈을 맞고 있는 나무를 바라본다. 봄눈이 오고 있고, 아직까지 풀이 말라 있다는 것을 통해 계절적 배경이 초봄임을 알 수 있다.

❶ 마른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 발치가 하얗다.

‘마른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고 있다는 것은 나무 아래에 눈이 쌓여 있지만, 풀들을 완전히 뒤덮을 정도로 많이 내리지는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 2연 | 나무의 예쁜 감은 눈에 대한 예찬

시적 화자는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며 나무의 감은 눈의 아름다움을 예찬한다. 여기에서 ‘눈’은 이중의 의미를 지니는 시어라고 볼 수 있다.

#### ❷ 예쁜 감은 눈 / 너, 아니?

화자는 나무를 가리켜 ‘너’라고 하고,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다고 하며 나무를 의인화하고 있다. 나무의 ‘감은 눈’은, ‘눈’을 감각 기관인 ‘눈(目)’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나무가 봄눈에 덮여 있는 모습을 의인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눈’을 ‘초목의 싹(芽)’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감은 눈’은 아직 싹트지 않았으나 곧 싹을 내밀 ‘눈(芽)’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눈에 덮인 나무의 ‘눈(目)’이든, 봄을 맞아 싹틀 준비를 하고 있는 ‘눈(芽)’이든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이 구절에 담겨 있다. 한편 ‘너, 아니?’라는 시구에는 의인법과 돈호법이 모두 쓰였는데, 사람을 부르듯 대상(나무)을 부름으로써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3연 | 나무의 감은 눈에 입 맞추려는 눈송이들에 대한 공감

시적 화자는 눈송이가 나무 위로 내리는 모습을 보며 봄눈이 나무의 감은 눈에 입맞추려는 것이라고 상상하고, 자신도 그럴 것이라고 말한다. 아름다움의 감지에서 생겨난 심미적 감흥을 감각적인 언어와 의인법, 영탄법 등을 활용하여 잘 표현하였다.

#### ❸ 눈송이들이 꿀얼음처럼 온다. / 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의인법을 활용하여 눈송이들이 나무 위로 내리는 모습을 형상화한 구절이다. 입맞춤은 대상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그 대상과 뜨겁게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시어이다.

#### ❹ 나라도 그럴 것이다 / 오, 네 예쁜, 감은 눈, / 예 피붓는 봄눈

봄눈이 나무의 ‘감은 눈’에 입 맞추려는 듯 피붓는 모습에 ‘나라도 그럴 것’이라고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인 싹표 사용과 행갈이, 영탄법을 통해 봄눈과 나무의 ‘눈’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길 건너 숲속,  
 ㉠봄눈 맞는 나무들.  
 ㉡마른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발치가 하얗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A]  
 눈송이들이 줄달음쳐 온다.  
 네 감은 눈에 입맞추려고,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네 예쁜, 감은 눈,  
 에 퍼붓는 봄눈!

- 황인숙, 「봄눈 오는 밤」

**인천고등학교 (인천)**

1.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작품의 계절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 : 눈이 쌓여 있는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 ③ ㉢ : 나무가 봄눈에 덮여있어 눈[눈]을 감은 상태와 봄을 맞아 싹[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모두를 의미한다.
- ④ ㉣ : 나무의 아름다움과 생명력에 감탄하는 화자의 공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⑤ ㉤ : 심포 사용과 행갈이, 도치법 등을 통해 대상에 대한 감탄을 나타낸다.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부산)**

2.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가 느껴지는군.
- ② 정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나열하고 있다.
- ③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 ④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 ⑤ 의인법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인천고등학교 (인천)**

3.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들길은 마을에 들자 붙어지고  
 마을 골목은 들로 내려서자 푸르러진다  
 바람은 넘실 천(千) 이랑 만(萬) 이랑  
 이랑 이랑 햇빛이 갈라지고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피꼬리는 여태 혼자 날아 볼 줄 모르나니  
 암컷이라 쫓길 뿐  
 수놈이라 쫓을 뿐  
 황금 빛난 길이 어지러일 뿐  
 얇은 단장하고 아양 가득 차 있는  
 산봉우리아 오늘 밤 너 어디로 가 버리련?

- 김영랑, 「오월」

- ①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시적 대상을 친근하게 느끼게 한다.
- ② 계절적 배경의 묘사를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③ 인간과 자연을 대조하여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일상에서 벗어난 공간을 제시하여 자연 속에서 사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주변 경관의 모습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대전노은고등학교 (대전)**

4.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A]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국화야 너는 어찌하여 따뜻한 봄이 다 지난 후에 / 이렇게 추운 계절에 너 홀로 피어 있느냐 / 아마도 매서운 서리를 이겨내는 꿋꿋하고 높은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 ② 천만 리 머나먼 길에 고운 임 이별하고 /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 저 물도 내 마음과 같아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 ③ 뭇버들 가지를 골라 꺾어 보냅니다. 임에게 / 주무시는 방의 창 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 밤비에 새 잎이 나면은 마치 나를 본 것처럼 여기소서.
- ④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 나는 젊었으니 둘이라 한들 무거울까. / 늙는 것도 서럽다 하거늘 짐까지 지시겠는가.
- ⑤ 동기로 태어난 세 몸이 한 몸같이 지내다가 / 두 아우는 어디 가서 돌아올 줄 모르는가. / 날마다 석양 무렵 문 밖에 나가 한숨 겨워하노라.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길 건너 숲속,  
봄눈 맞는 나무들.  
마른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발치가 하얗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눈송이들이 줄달음쳐 온다.  
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고,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네 예쁜, 감은 ㉠눈,  
에 퍼붓는 봄눈!

- 황인숙, '봄눈 오는 밤'

**경북사대부설고 (대구)**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역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색채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감각의 전이를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⑤ 심표 사용과 행갈이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경북사대부설고 (대구)**

6. <보기>는 '눈'의 사전적 정의이다. 이를 바탕으로 ㉠과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눈<sup>1</sup> [명사] 1. 빛의 자극을 받아 물체를 볼 수 있는 감각 기관.  
 ¶ 눈을 뜨다.  
 2. 시력. 물체의 존재나 형상을 인식하는 눈의 능력.  
 ¶ 눈이 좋다.  
 3. 사람들의 눈길  
 ¶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눈<sup>2</sup> [눈 : ] [명사] 대기 중의 수증기가 찬 기운을 만나 얼어서 땅 위로 떨어지는 얼음의 결정체.

눈<sup>3</sup> [명사] 식물의 새로 막 터져 돌아나려는 초목의 싹. 꽃눈. 잎눈 따위.

- ① ㉠은 ㉡과 달리 짧은 소리로 소리 내야겠군.
- ② ㉠이 '눈<sup>3</sup>'의 의미라면, '싹'으로 바꾸어도 무방하겠군.
- ③ ㉡은 '눈<sup>1</sup>-1'과 '눈<sup>2</sup>'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아 중의성을 띄고 있겠군.
- ④ ㉠과 ㉡은 의미적 연관성이 없으므로 동음이의 관계라 할 수 있군.
- ⑤ '눈<sup>1</sup>'은 다의어이므로 ㉡은 '눈<sup>1</sup>-1' 이외의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겠군.

**경북사대부설고 (대구)**

7. 윗글에 사용된 수사법(修辭法)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 ① 별이 내게 다정하게 속삭였다.
- ② 청산아, 왜 학처럼 야위었느냐
- ③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 ④ 배우고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 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경북사대부설고 (대구)**

8.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보기>

꽃에게로 다가가면  
부드러움에 찢려

빠거나 부은 마음  
금세

환해지고  
선해지니

봄엔  
아무  
꽃침이라도 맞고 볼 일

- 함민복, '봄꽃'

<조건>

- 1. 공통점은 내용적 측면에서 두 가지 서술하십시오.
- 2. 차이점은 형식적 측면에서 두 가지 서술하십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 건너 숲속,  
 봄눈 맞는 나무들.  
 마른풀들이 가볍게 눈을 떠받쳐 들어  
 발치가 하얗다.

나무들은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  
 너의 예쁜 감은 눈  
 너, 아니?  
 네 감은 눈이 얼마나 예쁜지.

눈송이들이 졸달음쳐 온다.  
 네 감은 눈에 입 맞추려하고,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네 예쁜, 감은 ㉠눈,  
 에 퍼붓는 봄㉡눈!

- 황인숙, <봄눈 오는 밤>

**포항장성고등학교 (경북)**

9. 위 시에 대한 감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봄날 눈을 맞고 서 있는 나무를 의인화하였다.
- ② 구체적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시각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④ 시적 대상을 부르는 표현을 통해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⑤ '밤'은 봄날의 밝은 이미지와 대비되어 심미적인 주제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포항장성고등학교 (경북)**

10. 위 시의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은 중의적 표현이 될 수 있다.
- ② ㉡은 계절적 배경을 드러낼 수 있다.
- ③ ㉡은 ㉠의 모습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나무의 눈(目)으로 볼 수 있다.
- ⑤ ㉠은 봄을 맞아 나무가 싹(芽)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포항장성고등학교 (경북)**

11. 위 시와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꽃에게로 다가가면 / 부드러운데 / 짙어 //

빠거나 부은 마음 / 금세 //

환해지고 / 전해지니 //

봄엔 / 아무 / 꽃침이라도 맞고 볼 일

- ① 두 작품 모두 활유법을 이용해 봄의 생명력을 드러낸다.
- ② 두 작품 모두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보기>는 침의 뽀족함을 통해 봄의 아름다움을 참신하게 표현한다.
- ④ 위 시는 자연을 통해 위로를 얻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두 드러진다.
- ⑤ 두 작품 모두 시적 대상이 지닌 아름다움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동국사대부고 (서울)**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면서 대상에 대한 감흥도 달라지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청자의 설정을 통해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
- ③ 시적 대상의 추상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공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④ 화자가 구체적인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 ⑤ 시 전체에서 사용된 단정적 어조는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동국사대부고 (서울)**

13. 윗글의 핵심적 시어인 ( ㉠ )은/는 발음상 동일하지만 의미가 서로 다른 ( ㉡ )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어를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본다면 시의 의미가 다채로울 수 있다. 괄호 안에 적절한 단어를 쓰고, 해당 시어의 의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홍길동전)

8)구어체: 일상 생활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문장에 사용한 문체

-“엄마, 엄마, 사랑 아저씨도 나처럼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한대.”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9.③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 허름송이<sup>는</sup>아니었다.’처럼 편집자적 논평이 있어, ③이 적절함.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성격, 심리, 태도 등) 직접적 제시 vs 간접적 제시 (★★★)

ㄱ. 직접 제시: 서술자가 직접 관련된 어휘 사용. (소심, 차분, 완벽하다 등) → 전지적 시점과 연관

ㄴ. 간접 제시: 인물의 대화, 행동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됨 → 관찰자 시점과 연관

▶응, 헛갈리지 마!◀

독백 vs 대화 vs 방백 (★★)

ㄱ.독백: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혼자 말함.

ㄴ.대화: 청자를 의식하고 상대와 말을 주고받음.

(시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은 ‘대화체’로 봄)

ㄷ.방백: 극문학에서 상대가 옆에 있어도 화자의 말을 못들은 것

11.④

▶물리적인 대우란 유자가 빈소에서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폭력적인 ‘대우’를 이르기엔 ‘대우’의 의미가 반어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님.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반어법 vs 역설법 (★★★)

ㄱ.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꼬)

ㄴ.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2. 문학의 미적 범주 (★★)

1)비장미: 자연을 ‘나’의 실현 의지가 현실적 여건 때문에 좌절.

2)우아미: ‘나’가 자연의 조화라는 가치에 순응.

3)골계미: 자연의 질서나 이치를 의의 있는 것으로 존중하지 않고 풍자하고 조롱함.

4)송고미: 절대적 가치를 지닌 송고한 대상을 우러러보고 그 속성을 본받아 따름.

12.①

▶윗글 ㉔는 ‘저 혼자 스스로’이지만 ㉕은 ‘희생된 물건이 나 사람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임.

13.②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서술자가 독자에게 직접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전하고 있다.

▶어머, 이견 외워야 해!◀

문학에서의 ‘입체적~’ 총정리

ㄱ. 입체적 서술(입체감 부여): 한 대상으로 둘 이상의 각도 (관점, 입장, 시간, 공간, 감각)에서 바라보는 것.

ㄴ. 입체적 구성: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르지 않고 사건의 분석 등으로 시간의 역전이 일어나는 구성. (현대 소설, 특히 심리 소설에서 많이 나타남)

ㄷ. 입체적 인물: 성격이 큰 틀이 변하는 인물.

14.①

▶(나)에는 유자가 한 운수 회사의 노선 상무로 일하던 시절,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행적이 드러남.

15.⑤

▶유자의 인간성은 변화가 없었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평면적 인물 vs 입체적 인물 (★★)

ㄱ.평면적 인물: 성격이나 가치관이 단일함.

(주로 ‘고전’ 소설의 인물 유형)

ㄴ.입체적 인물: 성격이나 가치관이 변함.

(주로 ‘현대’ 소설의 인물 유형)

16.③

▶ㄴ: 유자가 예봉을 피하는 것에 불법성은 없음. ㄷ: 작가의 가치관에 단순히 공감하는 것은 비판적 수용이 아님.

18.④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의 혼합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소설의 시점 (★★★)

ㄱ.1인칭 시점: 주인공 혹은 관찰자→작품 안에 존재

(지문에 일단 ‘나’가 등장하면 1인칭으로 판단)

ㄴ.3인칭 시점: 관찰자 혹은 전지적→작품 밖에 존재

(3인칭 전지적 시점은 모든 인물의 심리 서술 가능)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서술의 범위가 넓어서 많은 것(성격, 심리)을 서술할수록 독자는 그대로 수용↑, 상상력 제한↑

\*서술자 내부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 외부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2. 편집자적 논평(=서술자의 개입) (★★)

ㄱ.서술자가 인물 및 상황에 대해 감정 반영, 해석, 판단 등의 주관적 서술이 뚜렷함. -(산천초목이 슬퍼하며)

ㄴ.서술자가 작품 속의 인물인 듯한 말투를 사용.

-(~더러, ~리오, ~것다, ~렀다 등)

(느낌표가 있어 감정이 드러나면 편집자적 논평일 가능성이 높다)

[ 지문 변형 ] 즉시 별당을 깨끗이 치우고 잔치를 배설하여 토끼를 정으로 청하여 상좌에 앉히고 별주부 내외 당하에 꿇어 백배 애걸한다. 별주부 내외 참으로 곤란하겠구나! 곤란하겠어!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은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에서 나타나 는 현상이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의 서술이 모두 <서술자 의 개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술자의 개입>과 <편집자적 논평>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 기 때문에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렇 게 명확하지 않은 두 개념을 구분하는 문제는 당연히 출제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21.④

▶주로 유자의 일화 그에 대한 평가인 것이지, 특정한 사건 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건 아님.

▶넣어둬, 패턴 공략◀

**현장감 및 생동감 높이는 요인 (★★)**

: <방언>, <구어체>, <현재형>, <의성·의태>어, <현재형 어 미> 등의 사용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풍자 vs 해학 vs 언어유희 (★★★)**

ㄱ. 풍자: 남 혹은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비웃으면서 비판 (웃음+비판 목적)

ㄴ. 해학: 오직 웃음을 유발할 목적 (웃음 목적)

ㄷ. 언어유희: 말이나 동음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 (웃음 목적+비판 동반가능)

'웃음'은 우리 문학의 주요한 테마 요소로 희화화, 풍자, 해 학은 모두 웃음을 동반하는 공통점이 있다.

**2. 통사 구조의 반복 vs 대구법 (★)**

ㄱ. 통사 구조의 반복: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바람도 없는 공중에~누구의 발자취입니까? / 지리한 장 마 끝에~누구의 얼굴입니까?)

ㄴ. 대구법: 비슷한 어구를 짝지 지어 놓는 것 (돌담에 속삭 이는 햇살같이 /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통사 구조의 반복 중에서 두 어구가 바로 짝을 지어 나타 나면 대구법이 됨.

24.⑤

▶동료라도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지 아량을 베풀진 않음.

25.①

▶'균계일학'은 '무리 지어 있는 닭 가운데 있는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으로 또래 중에서도 두드러진 바가 있다는 ㉠ 과 가장 어울림.

26.⑤

▶유가족들이 폭언과 폭력에도 그들을 동정하고 돌보려하 는 것임.

27.②

▶서로 상반되는 두 어구가 아닌, 비슷한 둘 이상의 글귀를

짝지어 운율을 형성함.

29.④

▶㉡ : 매정한 현실에 대해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유자의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씨가 나타남.

30.②

▶당대의 전형적인 인간상과는 다른 본받을 만한 인간상을 나타냄.

▶넣어둬, 패턴 공략◀

세대:

'사람들의 일상생활, 풍습 따위에서 보이는 세상의 상태나 형편'의 의미로 어휘 자체가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된다. 어휘 자체의 의미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 이미지이 지만 문학에서는 대부분 부정적 수식어와 함께 자주 사용 된다.

31.⑤

▶주로 서술자에 의해 인물의 성격이 제시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성격, 심리, 태도 등) 직접적 제시 vs 간접적 제시 (★★★)**

ㄱ. 직접 제시: 서술자가 직접 관련된 어휘 사용. (소심, 차 분, 완벽하다 등) → 전지적 시점과 연관

ㄴ. 간접 제시: 인물의 대화, 행동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 됨 → 관찰자 시점과 연관

32.⑤

▶㉢은 이미 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힌 이후임.

34.⑤

▶전지적 작가 시점이기에 주인공의 심리가 다 드러남.

37.④

▶'가보니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보기에다 족보가 있는 병이 아닌가 싶은 증세였다. 그는 며칠 있다가 일터에 복귀했다.'를 통해 알 수 있음.

38.①

▶자막을 넣는 기술이 없어서 변사가 여전히 활약하고 있 었음.

39.③

▶[A]는 유가족의 분풀이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은 억울함 을 스스로 달래기 위한 한탄이고, [B]는 유가족인 듣는 이 의 아픔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2-(2)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별빛**

1.③

▶소재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 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순서를 정한 건 아님.

2.⑤

▶㉠ :대답을 요구하는 물음이 아니라 화자의 주제 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설의적 표현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 ㄱ.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 ㄴ. 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 ㄷ. 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3.③

▶㉠과 ㉡는 의인법이 사용됨.

**김영랑, <오월>**

\*주제: 오월에 느끼는 봄의 생동감, 봄날의 생명력

\*해제: 이 시는 봄날의 자연 풍경을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화자의 눈은 '들길'에서부터 '마을, 들, 바람, 햇빛, 보리, 피꼬리, 산봉우리'를 향해 이동해 가면서, 이를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여 약동하는 봄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마을로 통하는 황톳길은 붉은색으로, 들판으로 이어지는 길은 푸른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색채 대비는 토속적인 마을 풍경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아울러 봄날의 생동감을 환기시켜 준다. 또한 봄바람에 흔들리는 들판의 보리가 햇빛을 받는 모습에서도 봄의 생명력이 드러난다. 이런 생명력은 '천 이랑 만 이랑, 이랑 이랑, 허리통' 등에 나타난 유음 'ㅇ'의 사용으로 운율감 있게 표현된다. 이어서 화자는 하늘을 정답게 나는 암수의 피꼬리를 통해 약동하는 봄날의 생기를 형상화한다. 특히 수놓이 암컷을 쫓아간다고 말함으로써, 봄이 지닌 새로운 생명력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한다. 마지막으로 봄이 되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산봉우리를 여인으로 의인화함으로써 대지의 생명력과 그것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이 작품은 봄의 생동감 넘치는 정경에 대해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정경 자체를 다양한 표현 기법을 통해 묘사함으로써 강한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였다, 1등급 조연◀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에도 없는, 외부 작품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낯선 작품을 대상으로 감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인데 수험생들에게 당연히 부담이 된다. 무엇이 나올지 감도 안 잡히고~그럴 땐 기출에 나온 작품 군들만이라도 조금 정리해두자. 이렇게 <보기>로 전문이 출제될 정도의 수준이라면 주제와 길잡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자. 이렇게 익히다 보면 낯선 작품에 대한 큰 틀의 감상 능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교과서 작품과 비교하여 포인트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다.

▶어머, 이견 외워야 해!◀

**의인법 vs 활유법 (★★★)**

ㄱ. 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ㄴ.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새가 노래를 부른다'→노래는 사람만이 부르는 것이므로 의인법에 해당, '바위가 숨을 쉬고 있다'→숨을 쉬는 것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가능하므로 활유법에 해당)

7.②

▶고흐가 빛나는 것이 없다는 의도로 그림에서 대상을 그린 것인지는 알 수 없음.

9.①

▶'저 별들이 왜 환하게 노래하고 있지요?', '세상에 노래하지 않는 별이 어디 있소?'가 설의적 표현임.

▶어머, 이견 외워야 해!◀

**1. 색채어 (★)**

빛깔을 직접 나타내야하며 색을 가지고 있더라도 색깔의 명칭이 직접 드러나지 않는 대상물은 색채어가 아니다.

\*푸르다, 누렇다, 불그스레하다, 새빨갳다 →(색채어 ○)

\*물감, 무지개, 색연필, 포도, 도화지 →(색채어 ×)

**2. 시제별 관련 요소 (★)**

ㄱ. 과거: 회상, 추억

ㄴ. 현재: 현장감, 사실감

ㄷ. 미래: 가정, 추측, 의지

10.③

▶③을 제외한 나머지 '형식'과 관련된 감상임.

11.④

ㄴ.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아닌, 소외된 대상임.

12.③

▶④만이 독백이고 나머지 상대방을 의식하거나 부르는 등의 대화 형식임.